



미 증시, 파월의장 발언 대기심리에도 소폭 상승

미국 증시 리뷰

25 일(수) 미국 증시는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의장 발언을 둘러싼 대기심리가 상존했음에도, 7 월 내구재주문 개선, J&J(-0.7%)의 백신 부스터샷 면역 강화 소식 등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0.1%, S&P500 +0.2%, 나스닥 +0.2%). 업종별로는 금융(+1.2%), 에너지(+0.7%), 산업재(+0.6%) 등이 강세, 헬스케어(-0.3%), 부동산(-0.2%), 필수소비재(-0.1%) 등이 약세.

7 월 내구재주문은 -0.1%(MoM)로 전월(+0.8%)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예상치(-0.3%)는 소폭 상회. 핵심 내구재주문도 +0.7%로 전월(+0.6%) 및 예상치(+0.5%)를 모두 상회하는 등 미국 내 기업들의 투자는 건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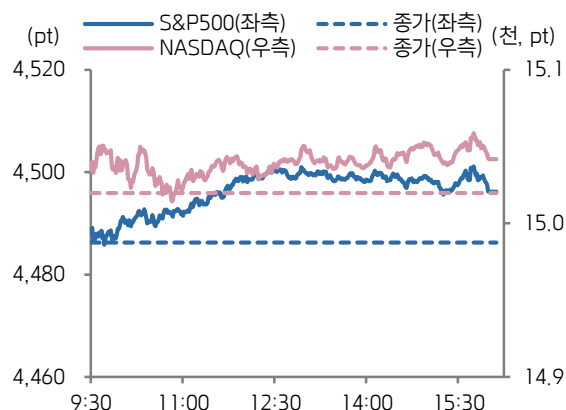
J&J 는 동사의 안센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초기 임상과 관련해, 최초 백신 접종 후 6 개월 지난 환자들에게 부스터샷을 투여한 결과 항체가 최초 접종 4 주 이후와 비교해 9 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발표. 이로 인해 9 월부터 J&J 가 화이자, 모더나와 함께 백신 추가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

미국 증시 평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장이 테이퍼링을 공식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주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로 복귀한 이후에는 잭슨홀 결과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 그러나 델타 변이 확산 이후 미국 경제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 변화 여부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은 연내 테이퍼링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미팅 결과에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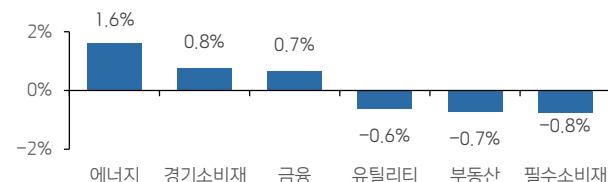
테이퍼링 시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시장에는 유동성이 풍부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의 실적 호조 및 경제 정상화 전망도 유효하다고 판단. 이를 고려 시 추후에 연준 혹은 여타 알려진 매크로발 불확실성 국면이 출현하더라도, 미국 증시의 하단은 견조할 것으로 전망.

S&P500&NASDAQ 일종 차트(8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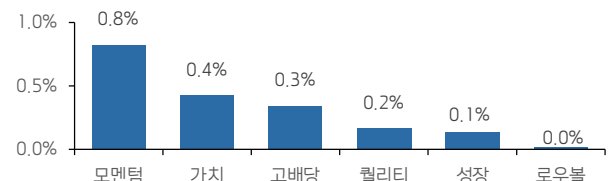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25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8월 25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8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2.2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64.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반도체주 강세로 인한 국내 반도체주 투자심리 개선 가능성
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3. 잭슨홀 미팅 경계심리로 인한 전반적인 시장의 거래 부진 여부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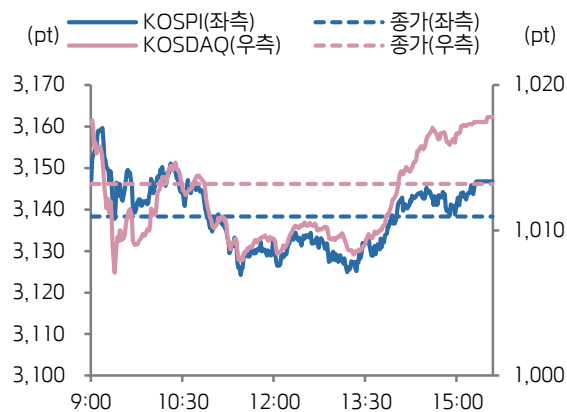
25 일(수) 코스피는 전거래일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최근 2 거래일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속 27 일(금) 잭슨홀 미팅 경계심리로 장중 등락을 거듭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함. 다만, 장 후반 외국인의 순매수세 전환 속 삼성전자(+0.1%) 등 일부 대형주 반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코스피 +0.27%, 코스닥 +0.45%).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4.2%), 철강금속(+1.4%), 화학(+1.3%) 등이 강세, 은행(-3.1%), 의료정밀(-1.3%), 의약품(-0.8%)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6 억원, 218 억원 순매수, 개인이 263 억원 순매도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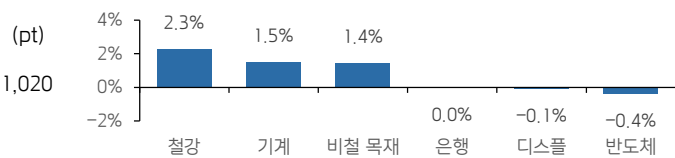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둘러싼 경계심리가 짙어지면서 전반적인 거래가 부진함에 따라 제한적인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최근 금리 동결 쪽으로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금통위의 결과도 금일 주목할 만한 이벤트이지만, 잭슨홀 이벤트를 앞둔 만큼 해당 이벤트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전거래일에 이어 보합국면에서 매매 공방을 벌이는 눈치보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으나, 업종별로 차별화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한편,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0.8%)가 웨스턴디지털의 키옥시아 인수 소식, TSMC 의 반도체 가격 인상(+10~20%) 등 M&A 및 가격 인상 소식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 업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켜줄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8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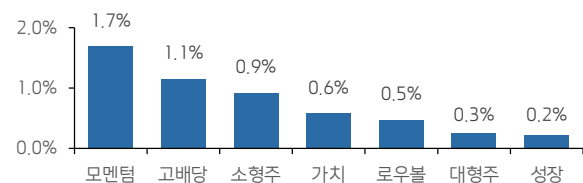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25일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8월 25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류,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승,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